

공동체 소식



6월, 예수 성심 성월

**예수 성심께 우리 자신과 가정,
그리고 본당과 캔사스 전체를 봉헌합니다!!**

예비자 인도에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고,
예수 성심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6월 기도지향

- 김창만(그레고리오), 이대숙(사비나) 김선영(아네스) 가정
- 김정환(요 한), 윤유나(글라라) 김민정, 김성태 가정

오늘은 “그리스도의 성체성혈 대축일” 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밥으로 내어주시고, 그 밥을 함께 나누어 먹도록 하신 일은 밥이 지닌 가치와 먹는 일 안에 담긴 신비를 잘 알고 깨쳤기 때문입니다. 밥상을 차리는 먹거리에는 농부들의 수고와 땀이 들어있고, 밥 짓는 사람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성체성사는 우리에게 대한 하느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으며, 힘들고 혼란스러운 세상 안에서라도 참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생명력을 얻는 사랑의 밥상입니다. 우리를 먹이고 살리시기 위하여 조건 없이 바쳐진 예수님의 몸을 먹고 사는 일은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합니다. 천상의 양식이며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양식인 성체성사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담긴 사랑의 성사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당신 자신을 밥상에 내어놓으시며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오늘 “평협회의” 가 있습니다.

오늘 미사 후에 평협회의가 있습니다. 평협 분과장님들께서는 꼭 참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6월 10일(주일) 점심식사 후

다음 주일 “병자영성체” 가 있습니다.

다음주일에는 병자영성체가 있습니다.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구역장님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6월 17일(주일) 오후

다음 주일 “구역장 모임” 이 있습니다.

다음주일에는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장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6월 17일(주일) 점심식사 후

2012년 캔사스 한인성당 “감사와 치유의 밤”

6월 예수성심 성월을 맞이하여 캔사스 한인성당 “**감사와 치유의 밤**” 을 준비하였습니다. 풍성한 감사와 은혜로운 치유의 이뤄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모든 교우님들께서는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 주 제 : “**나는 하느님의 희망이 되고 싶다.**”
- 일 시 : **6월 19(화) - 20일(수) 저녁 8시**
- 강 사 : **정건석 프랜시스 신부**
(어스틴 성 김대건 성당 주임신부 및 미중남부 성령봉사회 지도신부)

예비신자 교리반 안내

예비신자들을 위한 교리반이 시작되었습니다. 가톨릭교회에 입문을 원하시는 분이나, 기초교리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우님들께서는 아직 하느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성당에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리일시 : 매 주일 아침 10시
- 교리장소 : 성당지하

거룩한 독서모임

매주 화요일 미사(저녁 8시)후 성당에서 거룩한 독서모임이 있습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합니다.
- 화요일 : 저녁 8시 30분부터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162	211	496, 174	431

주일미사 복사

	종 복사	향 복사
이번주일 (06/10)	홍순익(마르티노)	안동현(프란치스코)
	김준영(요 셉)	안지영(가타리나)
다음주일 (06/17)	안광민(야 고 버)	차호섭(요 셉)
	안광희(크리스토퍼)	차서은(세라피나)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대봉사	제2독서
이번주일 (06/10)	박혜정(가타리나)	이우영(가브리엘)
	김주연(세실리아)	김수연(율리안나)
다음주일 (06/17)	김명은(안 젤 라)	문석찬(요 셉)
	김수연(율리안나)	백문주(엘리사벳)

애찬 봉사자

이번주일(06/10)	손정화 이사벨 , 윤유나 글라라, 유미영 마리안나
다음주일(06/17)	신혜경 마리아 , 박혜정 가타리나, 유경애 아네스

헌금 봉사자

이번주일	최은미(아 네 스)	문석찬(요 셉)
다음주일	신혜경(마 리 아)	박희영(가타리나)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두셔서 감사합니다!!!

<6월 3일>
- 미사참례 : 71명
- 주일헌금 : \$297
- 교 무 금 : \$2040



성체 성혈 대축일

“**믿음이 깊으면 기도를 하고, 기도가 깊으면 전례에 적극 참여한다**”

2012년 6월 10일

미사시간

주 일 : 11:00 AM
평 일 : 수 목 금 10:00 AM
 화 8:00 P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박진성 프란치스코
C: 913.484.3555
saecula1026@gmail.com
회 장 안동현 프란치스코
C: 913.219.8066
Tonghyun.An@gmail.com
부 회 장 정수한 베드로
C: 913.707.8142
scnn8@hotmail.com
재 무 차호섭 요셉
C: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날 교회는 예수님께서 성목요일에 성체성사를 제정하신 것과, 사제가 거행하는 성체성사로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되어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의 현존을 기념하고 묵상합니다. 전통적으로 삼위일체 대축일 다음 목요일을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로 지내는데, 한국에서는 사목적 이유에 따라 주일로 옮겨 지냅니다.

성화해설

풍수원 성당
원주교구,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소재.

신유박해를 피해 서울과 경기도 등지에 살던 교우들이 산간지역으로 숨어들었고, 이들 중 신대보와 40여명의 교우들이 풍수원에 정착해 교우촌을 이뤘다. 1888년 강원도 최초의 본당으로 설립된 후 2대 주임으로 부임한 정규하 신부는 현 성당을 완공하여 1909년 봉헌식을 가졌다. 한국인 신부가 지은 첫 번째 성당으로 1982년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69호로 지정됐다. 풍수원 성당에서는 한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성체현양대회가 1920년 이후 매년 거행된다.

주호식 파드리치오 신부 | 서울대교구 전산정보실장

제 1 독서 : 탈출 24,3-8 < 이는 주님께서 너희와 맺으신 계약의 피다. >



구 원 의 잔 받 들 고 서 주 님 의 이 름 을 부 르 리 라.

○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주님께 갚사오리
구원의 잔 받들고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리라. ◎

○ 가락할쏜 주님의 눈에 성도들의 죽음이여 주님 저는 당신의 종 당신 여종의 자식입니다.
주님께서 제 사슬을 끊어 주셨나이다. ◎

○ 주님 당신 이름을 높이 부르며 찬미의 제사를 올리리이다.
주님의 모든 백성 앞에서 저의 서원을 채워 드리리이다. ◎

제 2 독서 : 히브 9,11-15 <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복 음 : 마르 14,12-16.22-26 <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

말씀의 이삭

“새로운 몸으로”



우리의 피부는 외부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방어벽 역할을 하지만, 체온 유지와 감각 전달 작용과 함께 나이를 보여주는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기저 층의 기저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표피 세포들은 계속 분열하면서 각질화 하여 몸에서 때가 되어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세포로 대체됩니다. 이 각질층은 계속해서 밑에서 피부 세포들로 보충이 되고, 가장 밖에 있는 각질층은 눈에 보이지 않게 떨어져 나가는 작용을 반복합니다. 밑에서 피부 세포들이 새로 분열해서 만들어지고, 위의 각질층까지 올라오는 데는 걸리는 시간은 세포 분열로 새로운 피부 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약 2주, 새로 만들어진 피부 세포가 각질층이 되기 위해 준비하며 각질층까지 올라오는데 2주, 각질층에서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려 평균 6주(정확한 수치로는 39일)면 표피가 새롭게 바뀝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피부가 항상 새롭게 변화합니다.

단순한 목상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깊이 느끼고 실제로 체험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도의 말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영하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었다면, 우리는 결국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서로 따로 따로 생활은 하지만 우리의 몸에서 흐르고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요, 우리를 지탱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의 몸인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또다른 모습의 그리스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 이웃의 동료들도 한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오늘의 축일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은 6주에 한 번씩 새롭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체를 받아 모시는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나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도 그렇지만 우리의 피부는 이처럼 신기합니다. 지금 있는 몸은 실제적으로 6주전의 몸이고, 6주가 지나면 새로운 변화된 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피부의 변화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음식으로 먹고 마시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만일 몇 년 동안 성체를 받아 모신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되지 못했다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로 성체성사의 신비를 묵상하는 날입니다. 성체성사의 신비는 세상을 살리고 당신 아들을 내주신 하느님 사랑의 신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구원되고 새로운 생명으로 이끌려 교회의 지체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끝없는 기쁨을 미리 맛보며 그리스도로 양육되는 신비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할 일은



● 박진성 프란치스코 신부 | 캔사스 한인 성당 주임

함께 나누어요

삶으로 드리는 기도

성인이라고 볼릴 만큼 열심히 기도하는 형제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마다 몇 시간씩 기도하는 것을 수십 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다. 이러한 정성에 감동을 하신 하느님께서 어느 날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 형제님 뒤에 서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마침기도를 하는 그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그 형제님께서 고개를 번쩍 들며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무슨 짓을 하는 거요? 지금 기도하는거 보이지 않소, 방해하지 말고 저러가시오!”**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단 한 마디 말도 못하고 그냥 떠나갔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분명히 하느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느님을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한다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들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 본인이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양의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러한 것들은 입 안에서 맴도는 말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부터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입이 아니라 삶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Mother's Day

사랑하는 아내, “주연(세실리아)” 에게!

안녕하십니까? 정수한 베드로입니다. 어머니날을 맞아 어머니와 아내에게 감사의 글을 써보라는 신부님의 말씀을 듣고 무척 당황스럽고 주저 하였습니다. 내가 어렸을 적부터 아주 싫어하던 것이 그림 그리기와 글 쓰기였거든요. 꿈꿈이 생각해보니 초등학교 때 매 년 어버이 날 즈음해서 쓰던 감사 편지를 쓴 이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 아내에게는 연애시절 이후로 처음입니다. 하지만 글을 쓰기 위해 그분들을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분들과의 추억을 되새기면서 지금의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어떻게 내 자신이 비춰지고 있는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에 계시는 관계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 아내에 대한 글로 하고자 합니다. 대학시절, 항상 뭔가를 열심히 하는 당신을 보면 참 예뻐했습니다. 별로 하는 것 없이도 같이 있는 것 자체로 마냥 좋았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평생을 함께 하면서 서로 사랑하리라!’**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식 날, 혼배미사 내내 줄곧 울기만 하던 아내, 난감했지만 새로운 출발에 대한 설렘과 두려움 때문일거라 생각하며 평생 아껴주고 사랑해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의 유산과 힘들었던 유학생살로 참으로 많이 아내를 울렸습니다. 아내의 우는 모습을 보며 내 자신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남자답지 못한 비겁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10여년의 결혼생활이 지난 요즘, 우리 부부는 서로에게 적당한 무관심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가정사들을 접하면서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절대 그럴 리 없어’** 그렇게 자부하던 내가 불현듯 그러한 정조들을 이곳저곳에서 발견합니다. 얼마 전 본당 신부님의 글 중 **‘가장 깊은 상처’** 에서 가장 깊은 상처는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상처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콘크리트 벽에 부딪힌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편이라는 배경 뒤에 숨어 아내에게 가장 깊은 상처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 주고 있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20여년의 세월동안 당신을 위해주고 사랑하겠다고 다짐해 오던 내가 말입니다. 때때로 당신을 내 인생의 반려자가 아닌 나의 소유물처럼 여기지 않았나 싶을 때 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에게 비춰진 나를 생각해 보았을 때는 정말이지 섬뜩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보렵니다. **‘나의 아내니까 글이 표현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잘 헤아려주겠지’, ‘아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 이러한 나만의 프레임을 벗어 던지고 당신을 위한, 우리를 위한 프레임으로 말입니다. 얼마 전 음악피정에서 지도신부님이 **‘평화와 안정은 투쟁의 전과물이 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아내를 위한 투쟁을 시작하려 합니다. 다행히 사랑하는 사람이 주고받는 상처는 그것이 아무리 크고 깊더라도 그들이 주는 사소한 기쁨에 위로되고 치유되는 신비함이 있습니다. 아내를 위해 죽는 그 날까지 투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당신과 내가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나의 아내 세실리아, 고맙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영원히...



- 정수한(베드로)